

#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와 ‘전쟁’\*

— ‘대일본팽창론’을 중심으로 —

宋錫源\*\*

(e-mail : j60w0178@khu.ac.kr)

---

## 目次

---

- |                       |                  |
|-----------------------|------------------|
| 1. 머리말 : 도쿠토미 소호라는 인물 | 3. 팽창하는 일본과 ‘전쟁’ |
| 2. 소호의 평민주의와 국민       | 4. 맺음말           |
| 1) ‘nation’과 내셔널리즘 형성 |                  |
| 2) 일본에서의 ‘nation’ 형성  |                  |
| 3) 소호의 ‘국민’           |                  |
- 

## 1. 머리말 : 도쿠토미 소호라는 인물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 1863-1957)는 이른바 ‘문제적 인물’이다. 근대 일본이 서둘러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때, 메이지정부가 외국의 외교관을 접대할 목적으로 세운 사교장인 로쿠메이칸(鹿鳴館)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정부주도의 서구화는 지나치게 귀족주의적인 측면을 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풍조에 반발하여 평민주의(平民主義)를 내세웠던 소호는 분명 반권력적 측면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당대의 유력 권력정치인들과의 깊은 교유관계<sup>1)</sup>와 일본 흥룡을 일으켜 세울 사명을 마치 스스로에게 부여한 듯한 언론활동에서는 소호의 친(親)권력적, 혹은 신(信)권력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411-J00702).

\*\* 경희대학교 부교수 일본정치학

1)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佐々木隆, 「徳富蘇峰と権力政治家—帝国日本興隆へのアプローチ」, 山本武利編, 『「帝国」日本の学知 第4巻 メディアのなかの「帝国」』, 岩波書店, 2006, pp.65-103 참조.

적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호는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소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러한 저널리즘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강화, 확산하는데 분주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다분히 ‘문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호는 스스로도 종종 정치를 좋아한다고 표명하기도 했지만 정식으로 현실정치에 몸을 내맡긴 것은 약 100년 가까운 그의 인생에서 불과 2-3년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소호는 그러한 언론의 힘으로 정치를 견제하려 하기보다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입장을 활용하여 정치에 부단히 개입해갔다. 그가 설립한 국민신문사(國民新聞社)는 가쓰라 타로(桂太郎)의 어용신문으로 혹평되기도 할 정도로 정권에 유착된 모습을 노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요사와 기요시(清沢洌)로부터는 ‘출세주의자’, 혹은 ‘극학아세의 무리’라는 등의 야유를 듣기도 하였다.<sup>2)</sup>

소호는 실로 다수의 유력 정치인들과 교류했다. 그는 가쓰라뿐만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마쓰가타 마사요시(松方正義),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등과 친교를 맺었다. 이와 같이, 그와 친교관계를 맺은 정치인들의 면면을 보면, 정치를 좋아한 소호가 정치인 가운데서도 권력에의 의지를 가진 정치인을 선호하였다는 사사키 다카시(佐々木隆)의 평가<sup>3)</sup>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주도의 귀족주의적 서구화에 강력히 저항하는 한편으로, 다수의 유력 정치인과 친교를 맺고, 이를 통해 저널리스트로서의 자기 영역을 구축하면서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해간 소호는 자연스럽게 국권론자, 애국주의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국민지우(國民之友), 국민신문(國民新聞) 등을 발행하여 누구보다도 먼저 ‘국민’을 둘러싼 담론구조를 구축한 소호가 국권론자로서 애국주의를 강조할 때, 그가 강조했던 국민은 어떠한 위상을 갖게 되는가. 그에게 있어 국민은 국가흥룡, 곧 팽창하는 일본의 ‘전쟁’에 어떻게 연관되는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소호의 평민주의 주장의 근간이 되는 국민은 또한 전쟁을 통한 국가 팽창에 기여하는 국민이기도하다는 점을 그의 『대일본팽창론(大日本膨脹論)』을 토대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호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한국에서 다수의 연구서가 나오기는 하였지만, 소호의 국민론을 전쟁론과 연관시켜 연구된 연구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의 국민론과 전쟁론을 연관시켜 생각할 때 비로소 그의 사상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국권론자의 입장에서 강조한 팽창하는 일본, 즉 국가 흥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쟁을 하는 국

2) 清沢洌, 『暗黒日記』, 評論社, 1979, p.69, p.77.

3) 佐々木隆, 앞의 논문, p.69.

민, 혹은 전쟁을 준비하는 국민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소호의 인물 이해를 바탕으로 그의 정치론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국민론을 살펴보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 2. 소호의 평민주의와 국민

오늘날 '주권재민'의 정치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당연히 그러한 원리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원천이 다름 아닌 '국민(國民)'에 의거하고 있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 때 국민은 권리 주체로서의 자기자각을 갖는 존재로 이해된다. 겔너(Ernest Gellner)나 앤더슨(Benedict Anderson) 등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국민 창출은 근대의 산물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에서의 국민 창출은 메이지(明治)기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지헌법에서는 국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그에 상응하는 용어로서 '신민(臣民)'이라는 용어만이 사용되고 있다.<sup>4)</sup>

그러나 메이지헌법에서 신민으로 규정된 이후에도 일본사회에서는 국민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가노 마사나오(鹿野政直)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은 한편에서는 신민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신민과 결합 혹은 혼용되는 개념으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특권층이나 생활자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널리 활용되었다.<sup>5)</sup> 신민과 국민은 개념상 어느 정도의 간극이 있는 것인가? 일본 근대 형성사와 그 후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의 담당자나 동원 대상으로서의 신민 혹은 국민 개념은 어떠한 사정(射程)을 갖고 있는가? 메이지헌법이 국민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본 근대 형성사의 시기 구분을 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 장에서는 먼저 이러한 문제를 규명해야 하는데, 특히 메이지 격동기의 일련의 과정 속에 신민과 국민 혹은 유사 개념의 사용 추이를 염두에 두면서 도쿠토미 소호의 국민 개념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다만, 겔너나 앤더슨 등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이 근대에 이르러 만들어진 개

4) 노병호에 의하면, 메이지헌법, 곧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에서의 신민이라는 용어는 전문에 16회, 본문 1장에 1회, 2장에 14회, 3장에 1회 등 총 32회 등장한다고 한다. 한편, 현행의 일본국헌법(日本國憲法)에서의 국민이라는 용어는 전문에 11회, 제1장에 2회, 제2장에 1회, 제3장에 17회, 제7장에 1회, 제9장에 3회, 제10장에 2회 등 총 36회 사용되고 있다. 노병호, 「公議輿論과民意」, 韓國日本思想史學會, 『日本思想』(17호), 2009, pp.245-246.

5) 鹿野政直, 「近代日本における「國民」概念の変遷」, 翰林大学校日本学研究所, 『翰林日本学研究』(3호), 1998, pp.243-264 참조.

념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루트를 통해 무엇을 근간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의미와 용도로 유통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장을 논의함에 있어 켈너나 앤더슨 등의 내셔널리즘 논의에 대한 정리와 이해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유이다.

## 1) 'nation'과 내셔널리즘 형성

로크(John Locke)는 일찍이 그의 대표적인 저서 가운데 하나인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에서 ‘어떤 집단이 존재하여 스스로가 민족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귀결로서 스스로의 당연한 권리로 주권국가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sup>6)</sup>은 자연스러운 당위적 귀결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자신들만의 정부(국가)를 요구하는 데에 바로 근대적 내셔널리즘이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켈너(Ernest Gellner)에 의하면, 이러한 민족주의 시대로의 이행이 일어난 것은 근대 산업사회에 이르러서이다.<sup>7)</sup> 그의 민족주의 논의가 전(前)근대 농업사회(Agrarian Society)와 근대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켈너의 견해를 정리하면, 전근대 농업사회는 횡적(橫的)으로 단절된 사회이며, 근대 산업사회는 종적(縱的)으로 단절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전근대 농업사회가 사회 내부에서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침범할 수 없는 엄격한 사회적 규범에 의해 분리된 채, 서로가 서로를 타자(他者)로 인식하는 등 상호간의 교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사회(지배층과 피지배층을 각각 상하에 위치시켜 놓고 그 사이를 횡적으로 가로지르는 두터운 장벽을 친 것처럼 상호간의 교류가 봉쇄된 사회)라고 한다면, 근대 산업사회는 이러한 전근대 농업사회의 고정적이고 계층적인 특질을 붕괴시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지위를 고정하지 않음으로써 원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이전의 양 계층에 속하던 인간 상호간의 교류 및 지위의 상승과 하강이 자유롭게 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기존의 태생적으로 부여받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라는 고정된 지위(신분질서)가 마침내 의미를 상실하는 가운데 비로소 모두가 국민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나아가 근대 산업사회는 오히려 국민국가의 범주를 기준으로 타자를 의식하게 됨으로써, 타국, 타민족이 타자의식의 주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국민국가를 기준으로 종적인 장벽을 견고하게 구축해가는 과정, 환언하면 우리나라 및 우리 민족과 그 범주의 외부에 속하는 다른 나라 및 다른 민족과의 사이에 종적

6)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참조.

7)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참조.

인 장벽을 구축하여, 종적인 장벽의 내부자들 사이에 동봉(同朋)의식을 공유해 가는 한편, 그 국외자(局外者)에 대해서는 이질적인 타자의식을 강화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횡적으로 단절된 사회의 장벽을 허물고 새로이 종적인 장벽을 구축하는 것(겔너의 구상)만으로 민족주의가 간단히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민족주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종적인 장벽의 내부에 위치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동봉의식이 강화됨으로써 스스로가 타민족과는 구별되는 우리 민족(nation)이라는 의식을 공유하는 국민의 탄생이 필요하다. 그런데, 앤더슨에 의하면, 민족으로서의 의식은 결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었다.<sup>8)</sup> 민족으로서의 의식을 공유하는데 있어서는 예컨대, 교육제도와 행정 조직과 같은 시스템이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사람들은 이러한 제 시스템에 적응함으로써 비로소 민족으로서의 의식을 고양해가게 된다.

## 2) 일본에서의 ‘nation’ 형성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의미의 민족주의가 일본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민족주의 의식을 겸비한 일본 ‘국민’의 형성은 대체로 메이지(明治) 시대에 성립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9)</sup> 그리고 그것은 전시체제의 형성과 궤를 같이 하여 진행되었다. 일본에서 전시체제의 기점이 된 것은 청일전쟁이다.<sup>10)</sup> 실제로, 청일전쟁은 이후의 러일전쟁, 대만과 한국의 강제 병합, 만주국 건설, 만주사변, 중일전쟁, 남양(南洋) 공략, 아시아·태평양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침략전쟁의 기점인 동시에 일본인으로 하여금 국민으로 동원하는 다양한 장치를 일상생활 속에 강화하고 또 작동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sup>11)</sup>

8)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Verso, 1983 참조.

9) 사토 요시마루(佐藤能丸)는 메이지 시대의 일본 민족주의에 대해서 ①국권(國權)론, ②국수주의(國粹主義) 혹은 국민주의, ③일본주의(日本主義)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佐藤能丸, 『明治ナショナリズムの研究 : 政教社の成立とその周辺』, 芙蓉書房, 1998, pp.1-2. 이에 대해서는 송석원, 「메이지(明治)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 : 시가 시게다카(志賀重昂)와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제15권 제1호), 2010, pp.5-25도 참조.

10)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 전시체제는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의해 발발한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국일본의 국가 구상이 대외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것이 청일전쟁이며, 그러한 한에서 청일전쟁을 전시체제의 기점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강상중 역시 청일전쟁에서 비롯된 전시체제가 일본 근대와 그 후의 제국 일본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20세기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기점으로서의 청일전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상중의 이러한 지적은 1995년 6월 29일 국가기밀법에 반대하는 시민간담회가 주최한 ‘제7회 아사가야(阿佐ヶ谷)시민강좌’에서 나왔다. 谷藤康弘·井上芳保, 「国民創出装置としての日清戦争」, 『社会情報』Vol.8 No.2. 1999, p.41에서 재인용. 결국, 청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을 계기로 각각의 전시체제가 구축되고 있는데, 본고에서의 전시체제란 이 가운데 청일전쟁에 즈음한 체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연 도	주요 사건
1868	메이지유신
1869	판적봉환(版籍奉還), 사농공상 신분제 폐지, 에조치(蝦夷地) 개척
1871	폐번치현(廢藩置縣)
1872	학제(学制) 공포
1873	징병령(徵兵令)
1874	민선의원설립 건백서
1875	참방률(讒謗律)·신문지조례 제정
1882	군인칙유(軍人勅諭)
1887	소호, 국민지우 창간
1889	대일본제국헌법 발포
1890	제1회 제국의회 개원, 교육칙어(教育勅語)
1894-95	청일전쟁
1895	대만병합
1910	조선병합

그러나 청일전쟁이 일본에서의 국민 창출이나 내셔널리즘 형성의 가장 획기적인 계기였다는 점은 이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국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국민이라는 개념은 청일전쟁 이전부터도 사용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메이지 유신부터 조선병합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사회적인 주요 사건을 정리해보면 앞의 표와 같다.

메이지 유신에서 청일전쟁까지는 26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다. 메이지 유신 직후는 물론 그 이전의 도쿠가와 막부 시기에 피지배층은 지배층의 통치를 수동적으로 받으면서 그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존재로서 규정되었다. 인(人, 히토), 민(民, 타미), 초닌(町人), 백성(百姓), 시모지모(下々) 등은 주체로서의 자각을 결여한, 아니 자각을 도모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을 뿐이었다. 메이지 유신은 서구로부터 외래사상의 유입이 합법적으로 광범위 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등의 서양 번역이 일본의 근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sup>12)</sup>

그러나 메이지 유신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서구의 ‘nation’에 대응하는 개념은

11) 송석원, 「신문에서 보는 제국 일본의 국가이상 : 메이지 시대를 중심으로」, 現代日本学会, 『日本研究論叢』(31집), 2010, p.144.

12) 상세한 내용은 丸山眞男·加藤周一, 『翻譯と日本の近代』, 岩波書店, 1998 참조.

존재하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크나 켈너 등의 논의를 전제할 때, 내셔널리즘(nationalism)을 형성하는 nation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뚜렷한 자기자각을 갖는 존재여야 하는데, 아직 메이지 전기에는 그러한 자각적 주체의 성립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크(Kevin M. Doak)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 일부 학자들이 일본에서의 근대적 국민 개념 형성이 폐번치현이 단행되는 1871년에 완성되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나 당시 사용된 국민이라는 용어는 근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에도시대부터 내려오던 막번체제하의 사무라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sup>13)</sup> 분명, 1869년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 예컨대 판적봉환, 사농공상 신분제 폐지, 예조치(蝦夷地)에의 개척사 설치 등은 시민적 내셔널리즘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이른바 독서국민(讀書國民) 창출<sup>14)</sup>을 위한 제도적 정비로서의 학제 공포(1872), 국민개병을 목적으로 한 징병령(1873), 민선의원설립 건백서(1874) 등은 국민의 범주를 확정하거나 강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조치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국민 형성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출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참방률(讒謗律)·신문지조례 제정(1875) 등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거는 조치들이 연이어 취해지고 있고, 실제로 정치적 주체로서의 개념이어야 할 국민에 대신하여 신민이라는 용어로 구성된 제국헌법이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제국헌법 제정 당시 조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사의(私擬)헌법에서는 국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인민(人民)이라는 용어 역시 널리 논의되었다. 특히, 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는 그의 헌법초안 제4편에서 ‘일본국민 및 일본인민의 자유권리’라는 제목으로 제40조부터 제74조에 걸쳐 상세하게 권리를 보증하고 있는데, 이때 우에키는 천부의 인권을 담당하는 존재라 할 때는 ‘인민’을, 그 인민을 특히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자격의 측면에서 특징지을 때는 ‘국민’이라는 호칭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sup>15)</sup>

청일전쟁은 일본에서의 국민 논의에 일대 전기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청일전쟁 발발로부터 약 20여년 전에 시행한 두 가지의 중요한 국가정책, 즉 학제공포와 징병령 시행은 앤더슨이나 켈너 등이 언급하고 있는 근대국민국가 형성기의 국민 창출의 기제로서 착실히 역할을 수행해왔다. 국민 창출 기제로서의 학교교육이나 신문, 잡지 등의 활자 미디어는 전근대사회부터 존재하는 구성원 사이의 우리(공동체) 의식과 남(타자) 인식을 국가적인 규모로 전위시켜 자국민 의식과 타국 의식으로 전환시켜갔다.

13) Kevin M. Doak, *A History of Nationalism in Modern Japan*, Brill, 2007, p.166.

14) 永嶺重敏, 『<讀書國民>의誕生 : 明治30年代の活字メディアと讀書文化』, 日本エディタースクール出版部, 2004 참조.

15) 鹿野政直, 앞의 논문, pp.248-249.

### 3) 소호의 ‘국민’

소호는 자신이 주도하는 민우사(民友社)에서 1887년 발간한 국민지우 창간호에 국민, 인민 등의 용어를 병용한 ‘아아, 국민지우 창간되도다(嗟呼國民之友生まれたり)’를 게재하고 있다. 여기서 소호는 유신 개혁은 “필요한 지식을 세계에서 찾고, 구래의 누습(陋習)을 깨고, 천지의 공도(公道)에 기초하여 상하 마음을 하나로 하고, 활발하게 경륜을 행하고 널리 회의를 진흥시키고 만기공론으로 결정하고 인민을 고무하여 그 뜻을 펴게 하고 마음을 게으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sup>16)</sup> 소호는 위의 문장에 이어 “이를 상설하면 은둔국의 경우를 일변하여 문명세계의 운동에 가입하고, 공실무주인의 형세를 일변하여 이 신기한 국가로 하여금 신기한 인민과 함께 이를 다스리고, 이로써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문명의 운동에 종사케 하고 세계 만국에 대립하여 조금도 겁내지 않고 근심하는 바 없고 양보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고 말한다.<sup>17)</sup> 이것은 곧 구 일본을 파괴하고 신일본을 건설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유신 개혁의 대경륜이자 대목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8)</sup>

여기서 나타나는 소호의 입장은 평민주의의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서양 문명이 일본의 귀족계급에 국한하지 않고 평민 모두에게 은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과 같은 소호의 언급에는 그의 평민주의자로서의 진면목이 잘 나타나 있다.

서양(泰西) 사회가 평민적이고 그 문명도 또한 평민적 수용(需用)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해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나, 이 문명을 일본에 수입하자 불행하게도 귀족적인 대롱 구멍(管中)에서 했기 때문에 끝없이 귀족적인 취미(臭味)를 띠고 서양문명의 은택은 불과 한 종류의 계급에서 멈추고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런 고통도 관계도 없게 되었다.<sup>19)</sup>

이러한 소호의 평민주의적 입장은 국민지우에 게재한 소호의 글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사회의 폐습은 일본인민을 풀어놓아 아직 자유경쟁의 전장에서 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서 만약 누군가가 독립독행(獨立獨行)하여 그 업을 기도하고자 하면 좌로 견제되고 우로 제압되어 금력, 담력, 결합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혹은 공허하게 타인의 종횡자재하게 신변(神變) 불가사의한

16) 徳富蘇峰, 「嗟呼國民之友生まれたり」, 伊藤整 他編, 『日本現代文学全集 2: 福沢諭吉・中江兆民・岡倉天心・徳富蘇峰・三宅雪嶺』, 講談社, 1969, p.286.

17) 위의 글, p.286.

18) 위의 글, p.286.

19) 위의 글, p.287.



기발을 연출하는 것을 방관하게 한다. 따라서 관존민비의 폐풍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지우에 게재된 이러한 소호의 국민관은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각을 가진 존재로서의 국민의 개념이기보다는 천부인권의 소유자로서의 인민의 개념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비록 “평민사회의 인간은 모두 책임적 동물임을 자각하는 것”<sup>20)</sup>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의 ‘책임적 동물’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정치적 주체로서의 책임을 염두고 두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국권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대내외적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국민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소호에게서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각을 수반하는 국민 개념의 사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호의 국민 개념은 우에키의 그것과 크게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소호가 국민의 위대함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 예컨대 진취적 기운, 근면, 절검, 천명(天命)에의 신봉, 독립심, 공공심, 심지침저(心志沈著), 자신자중(自信自重)<sup>21)</sup>에는 정치적 자각으로 연결될 미점(美点)은 찾아보기 어렵다. 독립심과 공공심이 정치적 자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해당 항목에 대한 소호의 부연 설명을 보면 그러할 가능성은 전무에 가깝다.

더욱이 사회에 있어서의 사상의 세 조류인 사행(蛇行)파, 강개(慷慨)파, 고답(高踏)파 모두 실상은 사회에 독해(毒害)만 될 뿐이라고 논하면서 이들 세 파의 사상을 거부한 소호가 택한 길은 애국의 길이었다. 이때 애국은 모든 평민이 균일적으로 도모해야 할 길로 간주되는데, 그것은 사람으로서 생을 얻은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국가에 포용되고 애국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sup>22)</sup> 국가는 실로 하나의 천직(天職)을 갖는 것으로, 국민은 현명하고 실질적(賢實)인 정신을 휘날리고 강건한 이성을 존양하고 진지한 동작을 고무함으로써 이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 국가에 포용되어야 하는 존재로서의 소호에게서의 국민 개념은 국가를 위해 실천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녔을 뿐 그 자체로서 자기행동의 결정 주체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한편, 언론인 소호의 영향력은 청일전쟁 시기에 정점에 달했는데, 이것을 경계로 소호의 심경은 크게 변하여 종래의 평민주의적 주장을 버리고 새로이 제국주의, 무력 일본의 이상을 설파하게 되는데, 이 이유로 야나기다 이즈미(柳田泉)는 청일전쟁 후의 삼국간섭으로 종래의 그의 서양관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sup>23)</sup>이라고 설명한다. 즉, 문명의 전도자로 인식되었던 서양 역사의

20) 徳富蘇峰, 「新日本之青年」, 伊藤整 他編, 앞의 책, 9, p.248.

21) 徳富蘇峰, 「偉大なる国民」, 伊藤整 他編, 위의 책, p.293.

22) 徳富蘇峰, 「社会に於ける思想の三潮流」, 伊藤整 他編, 위의 책, pp.294-298.

(義)보다는 이(利)에서 행동규범을 찾는 나라들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확립이다. 그러나 청일전쟁이 발발한 해에 출판된 『대일본팽창론』에서도 소호의 국가주의적 사상의 일단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국민지우나 국민신문에 게재했던 것을 모아 엮은 『대일본팽창론』<sup>24)</sup>은 소호 사상의 급격한 변화의 면모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일본이 팽창해야만 하는 명운임을 논하는 이 책에서 소호가 사용하는 국민은 그러한 국가적 명운에 애국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가, 동원되는 존재이다.

이와 같은 한에서 소호에게서의 국민은 신민의 범주에 머무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신민은 신민이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 언제라도 동원될 수 있는 수동적 존재로서의 자기존재이유를 가질 뿐이다.

### 3. 팽창하는 일본과 ‘전쟁’

소호는 19세기의 세계와 20세기의 그것은 지속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즉, 그는 19세기는 ‘개인적 자유의 갈망에서 시작하여 국제적 생존경쟁’으로 끝났으나, 20세기는 그 연장으로 ‘열국의 생존경쟁’이 예측되는데, 그 경쟁이란 경우에 따라서는 절취, 강도, 방화, 살인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sup>25)</sup> 이미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제국주의는 바야흐로 상업이 일종의 전쟁이 된 것처럼 전쟁 역시 일종의 상업이 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지금은 상업과 전쟁이 동전의 양면(同體異面)이라고 갈파한다. 이와 같은 제국주의의 새로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힘이 부족하면 어떠한 정의공론(正義公論)도 반 문(半文)의 가치조차도 없는 것<sup>26)</sup>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국가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소호는 먼저 국민 모두가 스스로를 믿어야 하며 관민이 조화를 이루어 당파적 쟁투를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파적 쟁투에 빠져 있으면 국제적 경쟁의 장에서 내쫓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27)</sup> 이 가운데서도 소호는 특히 국민의 마음가짐을 강조한다. 그것은 곧 ‘위대한 국민’의 요건이며, 일본

23) 柳田泉, 「福沢諭吉・中江兆民・岡倉天心・徳富蘇峰・三宅雪嶺入門」, 伊藤整 他編, 위의 책, p.408.

24) 徳富猪一郎, 『大日本膨脹論』, 民友社, 1894.

25) 佐々木隆, 앞의 논문, p.81.

26) 徳富猪一郎, 『蘇峰自伝』, 同志社社史資料室(復刻板), 1995, p.310.

27) 佐々木隆, 앞의 논문, p.81.

국민 스스로가 위대한 국민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위대한 국민이란 스스로를 믿는 것이라고 소호는 말하고 있다.

런던탑에서 영국의 독립이 위협하고 지금 영국은 위급존망의 시기에 와 있다고 외치면 아마도 그는 정신병자(癲癲者) 취급을 받아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거나 우습다고 해서 해외 토박이 오르게 될 것이다. 이는 영국인들이 자국의 독립이 만만세일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민이 대국민인 것은 실제로 그들이 대국민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국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sup>28)</sup>

자신이 스스로를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일본에게 다행인 것은 메이지유신의 변혁으로 스스로를 믿는 토양이 갖추어졌다고 소호는 보고 있다. 그에게 유신은 일본의 현재와 장래에 있어 매우 깊은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는 일본은 불행하게도 3백 년 동안 절해(絶海)의 고도에 은둔함으로써 국가, 인민의 사상에 이르러서는 누구의 머릿속이라 할지라도 이를 찾을 곳이 거의 없어, 이름만 일본국, 국민이라 하고, 실제로는 황막(荒漠)한 주인 없는 빈집 같고, 사람은 문약(文弱)으로 흐르고, 인민은 빈들거리며 게을러(遊惰)져서, 도도한 천하대평의 꿈에 심취하여 아직 남의 일(他事)을 돌아보고 있지 못할 때, 미국 함대가 하늘로부터 와서 외국교제의 시비 없는 필요가 우리에게 육박하여 우리를 몰아붙여 국제 사상과 애국의 감정을 갖고 하였고, 이러한 감정, 사상은 유지의 머릿속에 일본국을 묘사해내고 일본인민을 그려내, 이로써 유신의 대변혁을 이루었다.<sup>29)</sup>

일본의 독립은 실로 일본국민 각자에 깊이 각인된 독립심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일본은 3천 년 간 독립국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3천 년 후에도 독립국일 것이라는 결심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sup>30)</sup>

유신의 대변혁은 일본국가, 국민이 비로소 서구 열강들을 배우고, 나아가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轉機)였다. 과거 수백 년의 역사가 수축의 역사였다면, 장래 수백 년은 팽창의 역사<sup>31)</sup>여야 한다. 그것은 곧 일본이 제국

28) 徳富蘇峰, 「偉大なる国民」, 伊藤整 他編, 앞의 책, p.291.

29) 徳富蘇峰, 「嗟呼国民之友生まれたり」, 伊藤整 他編, 앞의 책, p.285.

30) 徳富蘇峰, 「偉大なる国民」, 伊藤整 他編, 앞의 책, p.293.

주의적 팽창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사실, 평민사회의 법률은 단지 인과응보의 법률만이 있다<sup>32)</sup>는 그의 주장은 결국 절취, 강도, 방화, 살인 등을 아랑곳하지 않는 국제사회에서의 생존 경쟁에서 일본국가 독립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본국민의 국가 팽창적 자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할 필요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국민 스스로가 ‘위대한 국민’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일본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다.

위대한 인민은 자기 나라가 결코 우주 사이에 마멸(磨滅)되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며, 자기 인종이 결코 인류 사이에 소산(消散)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들은 천명(天命)을 믿어, 하늘이 결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것이다.<sup>33)</sup>

그동안의 일본 역사가 중국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왜소한 것으로 비춰져왔고 이에 대해서는 다수의 일본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소호에 의하면, 일본의 역사도 중국의 역사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팽창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중국이 육상에서의 팽창이었다면, 일본의 신대(神代)사부터의 팽창은 해상에서의 팽창이었다.<sup>34)</sup> 이미 일본은 그 자체가 팽창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시 수축한 적도 있었지만, 다시금 세계열강과 팽창 경쟁을 하게 되었다. 일본국민은 세계 도처에서 식민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내에서도 다다미 6장 정도의 방에 2명이 동거하는 좁은 국토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현재의 인구와 면적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토(오미(近江) 정도의 토지)를 새로이 증가시키거나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만큼을 다른 곳에서 탈취해야 하고, 판도가 증가하는 것은 인구증가의 비례와 함께 해마다 더해져야 한다.<sup>35)</sup>

이는 곧 소호가 제국주의를 옹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국주의적 팽창은 국가의 채산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소호는 국제관계에서의 평화 역시 힘에 의해 비로소 담보될 수 있는 것이었다. 영국, 프랑스 등이 세계 도처에 식민을 하고 있는 현상에 직면해서 일본에게 남겨진 길은 그러한 외국의 제국주의에 식민의 한 대상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여

31) 徳富猪一郎, 『大日本膨脹論』, 民友社, 1894, p.1.

32) 徳富蘇峰, 「新日本之青年」, 伊藤整 他編, 앞의 책, p.248.

33) 徳富蘇峰, 「偉大なる国民」, 伊藤整 他編, 앞의 책, p.292.

34) 徳富猪一郎, 『大日本膨脹論』, 民友社, 1894, pp.2-3.

35) 徳富猪一郎, 위의 책, pp.7-12.

타의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의 식민 건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소호는 일본이 가야할 길은 당연히 후자라고 강조한다. 그는 평화적 팽창주의를 신수(神髓)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단지 평화만 얻을 수 있으면 되는”<sup>36)</sup> 문제가 아니었다. 소호가 평화를 얻기 위한 방책으로 국가의 팽창을 적극 지지하면서 수시로 도처에서 결전(決戰)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sup>37)</sup>

인간의 전쟁은 전력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단지, 적을 몇 명 죽이고 적의 성을 몇 개, 대포 몇 문, 포로 몇 명을 빼앗았다고 전쟁에 능하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수준의 전쟁은 금수의 전쟁에서나 가능한 것이다.<sup>38)</sup> 인간의 전쟁에서는 승리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승리를 얻었는가 하는 정신적 작용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39)</sup> 그러면서, 일본국민의 전쟁과 관련해서는 스스로를 문명의 안내자, 인도의 확장자, 광명의 사도로 규정한다.<sup>40)</sup> 전쟁의 최대 목적은 동양 평화를 담보하는 것<sup>41)</sup>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 조선뿐만 아니라 남방, 즉 대만을 경영할 필요가 있다.<sup>42)</sup>

이와 같이, 소호는 제국주의를 침략주의, 배타주의, 무단독존주의(武權獨尊主義), 낭비주의가 아니라 무역·생산·교통·식민에 의해 일국의 이익을 확충하고 민족의 발달을 기하는 것을 축으로 하는 평화적 팽창주의<sup>43)</sup>라고 보고 있다. 군비는 바로 이와 같은 평화적 팽창주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다름 아니었다. 따라서 제국주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생산·교육·군비 등의 모든 점에서 날개를 활짝 펴야(開張)하는 것이다.<sup>44)</sup> 생산·교육·군비 등 모든 점에서 제국주의를 행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마침내 결전하여 대일본의 팽창을 도모하는 것에 소호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켰다. 그는 자신과 교유한 유력 권력정치인에게 이와 같은 일본팽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였으며, 언론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설파해갔다.

일본의 팽창은 중국, 조선, 대만 등에 단순히 일본인을 식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들 국가에서의 일본의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곧 소호가 일본의 중국, 조선, 대만에의 팽창이 동양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36) 徳富蘇峰, 「帝國主義の真意」, 『蘇峰文選』, 民友社, 1915, pp.479-482.

37) 소호는 “결전하라, 대결전하라, 국력을 기울여 결전하라”라고 반복해서 강조한다. 徳富猪一郎, 앞의 책, p.46.

38) 徳富猪一郎, 위의 책, p.48.

39) 徳富猪一郎, 위의 책, pp.48-49.

40) 徳富猪一郎, 위의 책, p.49.

41) 徳富猪一郎, 위의 책, p.55.

42) 徳富猪一郎, 위의 책, p.66.

43) 徳富猪一郎, 위의 책; 佐々木隆, 앞의 논문, p.87.

44) 徳富蘇峰, 「帝國主義の真意」, 『蘇峰文選』, 民友社, 1915, pp.479-482.

오히려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이들 국가에 식민을 넓혀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일본의 제국주의는 동양의 평화를 지향( 목표)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일본의 중국, 조선, 대만에의 팽창적 지배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소호가 『대일본팽창론』을 청일전쟁과 같은 시기에 발표한 것도 그 때문이다. 북방을 방어하고 남방(대만)으로 전개하는 것이야말로 대일본팽창의 대방침이다.<sup>45)</sup> 그리고 중국 정복은 일본국민의 자신감을 드높이고 제실(帝室)과 국민을 접근시키며, 궁극적으로 세계에서 일본의 지위를 확고하게 해준다.<sup>46)</sup>

결국, 일본의 팽창은 국민의 개인적 활동이 본(本)이 되고 국가적 팽창은 말(末)에 해당한다. 개인이 팽창하고 국가가 팽창한다.<sup>47)</sup> 실제로, 지금까지의 모든 일본 역사상의 국가적 팽창은 개인이 먼저 나아가 식민하고, 이어서 국가적 팽창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일본국민은 위대한 국민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위대한 국민의 성격이라는 것은 일본국민이 갖추기에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일본국민이 위대한 국민의 성격을 갖추면 일본국가의 흥룡은 그야말로 천상의 성좌(星宿)와 함께 없어지지(罄) 않고, 일본국가의 독립은 태양과 함께 마멸되지 않는다.<sup>48)</sup> 이로써 이미 국권론자, 제국주의자, 내셔널리스트였던 소호에게 국민은 ‘전쟁하는 국민’, ‘팽창하는 국민’으로 재구성되었다.

#### 4. 맺음말

도쿠토미 소호는 메이지 이후 일본의 대표적인 언론인, 논객으로서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특히, 메이지 초기부터 중기에 이르는 신문 초창기의 그의 족적은 현저한 바가 있다. 당시의 신문이 소신문과 대신문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치열한 경쟁을 하던 시기 정론(政論) 중심의 대신문을 대표하는 언론인으로서의 소호의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다수의 독자가 소호라는 이름만으로 신문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은 일단 그의 신문인으로서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호가 『대일본팽창론』을 전후한 시기, 곧 청일전쟁을 경계로 평민주의적 입장을 버리고 국가주의적 사상으로 급격히 경도되어 갔음은 이미 지적하였다.

45) 徳富蘇峰, 앞의 책, p.66.

46) 徳富蘇峰, 앞의 책, pp90-133.

47) 徳富蘇峰, 앞의 책, p.164.

48) 徳富蘇峰, 「偉大なる国民」, 伊藤整 他編, 앞의 책, p.293.

그러나 청일전쟁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소호의 ‘국민’ 이해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각을 결여한 존재로 시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책임 있는 존재임을 언급하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그러한 책임 역시 주체적 존재로서의 책임과는 상당한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국민은 자기 운명에 대한 주체적 결정과 책임을 동시에 갖춘 존재가 아니라,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매우 좁은 의미에서의 책임의식만을 소유한 자로 규정되고 있다.

더욱이, 청일전쟁 이후 대만병합이나 조선병합은 일본에 새로운 ‘국민’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었다. 식민지 인민을 국민으로 포섭해가는 과정이 그것이다. 식민지를 갖게 된 이후의 일본 내셔널리즘이 패전 시기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내셔널리즘에서 문화적 내셔널리즘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은 제국일본의 지식인과 정치 엘리트들에게 국민주의 담론에 종속적 요소의 포함 여부에 관한 논의로 귀결되어 가는 과정<sup>49)</sup>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주로 청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소호의 글들을 통해 그의 국민 이해의 표상을 드러내는 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視點)까지를 사정에 넣어 다루지는 않았다.

한편, 소호는 국권론자, 제국주의자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유력 권력정치인과의 교류를 통해, 혹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언론 활동을 통해 주장해갔다. 이러한 사정은 “소호는 정치의 현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고, 나아가 제국일본의 흥룡에 기여하고자 희망했지만, 번벌(藩閥)의 요인(要人)도 정당(政黨)의 영수(領袖)도 아닌 소호가 직접적으로 정치력을 투사(投射)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소호는 국민지우, 국민신문에서 얻은 성망(聲望)을 기초로 해서 권력정치인에게 작용하여 현실을 움직이는 간접적인 어프로치를 채용했다. 그에게 미디어는 여론을 움직이는 직접적인 소구(訴求)력 이상으로 정객(政客)으로서의 소호의 존재감을 담보하는 데 있어 중요했다”<sup>50)</sup>는 사사키 다카시의 소호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이 자국의 장래에 대해 모두 명확한 이해를 갖는 것은 곧 자신감의 배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데, 그러한 것이 궁극적인 국가독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호는 강조한다. 자국의 장래에 대한 자신감은 한편으로는 국가팽창의 동인이 되기도 한다. 적어도 소호에게는 자국의 독립을 강조하는 것과 타국의 독립과 자주를 인정하는 것이 등치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괴리는 결국 자국의 독립보전을 위해 타국으로 자국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긍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소호는 제국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게 된다.

49) Kevin M. Doak, 전게서, pp.194-202.

50) 佐々木隆, 앞의 논문, p.98.

## 【参考文献】

- 노병호(2009), 「公議輿論과民意」, 韓國日本思想史學會, 『日本思想』(17호), pp.245-246.
- 송석원(2010), 「메이지(明治)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 : 시가 시계다카(志賀重昂)와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제15권 제1호), pp.5-25.
- 송석원(2010), 「신문에서 보는 제국 일본의 국가이상 : 메이지 시대를 중심으로」, 現代日本學會, 『日本研究論叢』(31집), p.144.
- 鹿野政直(1998), 「近代日本における「国民」概念の変遷」, 翰林大学校日本学研究所, 『翰林日本学研究』(3호), pp.243-264.
- 清沢洌(1979), 『暗黒日記』, 評論社, p.69, p.77.
- 佐々木隆(2006), 「徳富蘇峰と権力政治家—帝国日本興隆へのアプローチ」, 山本武利編, 『「帝国」日本の学知 第4巻 メディアのなかの「帝国」』, 岩波書店, pp.65—103.
- 佐藤能丸(1998), 『明治ナショナリズムの研究 : 政教社の成立とその周辺』, 芙蓉書房, pp.1-2.
- 谷藤康弘・井上芳保(1999), 「国民創出装置としての日清戦争」, 『社会情報』Vol.8 No.2. p.41.
- 徳富猪一郎(1894), 『大日本膨脹論』, 民友社.
- 徳富蘇峰(1915), 「帝国主義の真意」, 『蘇峰文選』, 民友社, pp.479-482.
- 徳富猪一郎(1995), 『蘇峰自伝』, 同志社社史資料室(復刻板).
- 徳富蘇峰(1969), 「嗟呼国民之友生まれたり」, 伊藤整 他編, 『日本現代文学全集 2 : 福沢諭吉・中江兆民・岡倉天心・徳富蘇峰・三宅雪嶺』, 講談社, pp.285-286.
- 徳富蘇峰(1969), 「偉大なる国民」, 伊藤整 他編, 위의 책, pp.291-293.
- 徳富蘇峰(1969), 「社会に於ける思想の三潮流」, 伊藤整 他編, 위의 책, pp.294-298.
- 徳富蘇峰(1969), 「新日本之青年」, 伊藤整 他編, 위의 책, 9, p.248.
- 永嶺重敏(2004), 『<読書国民>の誕生 : 明治30年代の活字メディアと読書文化』, 日本エディタースクール出版部.
- 丸山真男・加藤周一(1998), 『翻訳と日本の近代』, 岩波書店.
- 柳田泉(1969), 「福沢諭吉・中江兆民・岡倉天心・徳富蘇峰・三宅雪嶺入門」, 伊藤整 他編, 『日本現代文学全集 2 : 福沢諭吉・中江兆民・岡倉天心・徳富蘇峰・三宅雪嶺』, 講談社, p.408.
- Benedict Anderson(1983), *Imagined Communities*, Verso.
- Ernest Gellner(1983), *Nations and Nationalism*, Cornell University Press.
- John Locke(1988), *Two Treatises of Govern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vin M. Doak(2007), *A History of Nationalism in Modern Japan*, Brill.



## 要 旨

徳富蘇峰は、明治以降、日本を代表する言論人、論客として大いに活躍した。とくに、明治の初期から半ばに至る新聞の幕開けの時期における彼の足跡は著しいものがある。当時の新聞が、小新聞と大新聞とに明確に区分されて熾烈な競争を繰り広げられた時期に、政論が中心である大新聞を代表する言論人としての蘇峰の影響力は大きなものであったといえよう。多数の読者達が蘇峰という名前だけで新聞を購入したという事実は、一応、彼の新聞人としての成功を意味するものでもあったはずである。

しかし、蘇峰は、自身が新聞人であることに単に満足してはいなかった。彼は、本来新聞というメディアが持つ政治社会への影響力を十分理解していたし、またそれを積極的に活用した。大変革の時代を迎え、国民の心構えからはじめて、国家独立と東洋の平和を為すための方策として大日本膨張論を主張したのである。これによって、国民は戦争する国民で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戦争をする国民は、近代国家が求めてやまなかった、国家のために存在する人間そのものであったといえる。そのように、蘇峰は、言論人であるとともに国権論者・帝国主義者でもあったといえる。

キーワード：徳富蘇峰、国民、戦争、東洋の平和、大日本膨張論、国権論、帝国主義

투 고 : 2011. 5. 31  
1차 심사 : 2011. 6. 11  
2차 심사 : 2011. 6. 25